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현대家 '형수-시동생 경영권 다툼' 가시화

“매입 지분 그룹에 넘겨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

백기사가 맞다면 10% 매각
불응엔 적대적 M&A 규정
경영권 방어 나서겠다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매입을 적대적 M&A 시도로 규정하고 매입한 지분 26.68%의 10%를 넘길 것을 요구하자 현대중공업이 현재로선 수용하기 힘들다고 반발해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대그룹 전인백 기획총괄본부 사장은 2일 현대상선 본사 대화실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의 현대상선 지분매입은 명백한 적대적 M&A의 시도”라

고 못박고 “현대중공업그룹이 백기사가 맞다면 현대상선 지분 26.68%의 10%를 즉시 그룹에 넘겨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전 사장은 이와 관련, “이날 오전에 현대중공업그룹 대표 이사와 기획실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하는 공식문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전 사장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7.2%와 우호지분을 포함한 현대상선의 내부지분율은 35% 수준이므로,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번에 매입한 지분 중 16%만 보유해도 우호지분이 과반수를 넘게 돼 경영권방어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현대상선의 지

분을 대량매입해 시장을 혼란시킨 것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현대그룹에 대한 적대적 M&A를 즉각 중단한다는 공식입장을 국민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현대중공업의 현대상선 지분매입에 대해 전 사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외국 투자자에게 프리미엄까지 주고 대량매입한 것은 명백한 적대적 M&A 시도이며, 외국투자자에게만 큰 이득을 안겨준 무책임한 국부유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대중공업그룹은 노르웨이계 해운회사인 골란 LNG 계열의 제버란트레이딩 등이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을 현대중공업

이 18.43%, 현대상호중공업이 8.25%를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같은 현대그룹의 요청에 대해 수일 전에 투자를 결정할 상태라서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오늘 요청받은 현대상선 측의 제의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과 수일 전 결정된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하다는 판단이며 추후 검토해 주주이익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현대상선의 지분과 관련해 당사의 이러한 기본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견지될 것이며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이사회 결의가



〈정몽준 현대중공업회장〉

수일전 투자 결정한 상태
상선주식 매입 당시부터
경영권 행사 의사 없다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이사회를 소집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현대중공업은 주식 매입 당시부터 현대상선에 대한 적대적 M&A는 물론 경영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수시로 밝혔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업 소식/

‘2006년 싱가포르 건설 대상’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건설청이 시상하는 ‘2006싱가포르 건설대상’에서 골든힐파크 콘도미니엄이 주거부문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골든힐파크 콘도미니엄은 싱가포르 개발업체인 CDLI가 발주한 4천500만달러 규모의 공사로서 지상 20층 5개동에 390가구 규모이며 현대건설이 2001년 6월 착공해 작년 1월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현대건설은 ‘2000 싱가포르 건설대상’에서 시그니처 파크 콘도모 대상을 받았으며 2001년과 2004년에는 각각 파크 팰리스 콘도, 서머힐 콘도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PDP진출 5년만에 분기 실적 1위



LG전자가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 진출 5년만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 1위에 올랐다.

2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G전자는 올해 1·4분기에 73만장의 PDP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31%를 차지하며 1위에 등극했다. LG전자가 PDP 분기실적 1위를 차지한 것은 5년만에 처음이다. 2·3위는 각각 56만장(점유율 24%), 55만장(24%)을 판매한 일본 마쓰시타와 삼성SDI가 차지했다.

LG전자는 1·4분기 매출액 또한 5억6천900만달러로 마쓰시타(4억5천100만달러)와 삼성SDI(4억2천100만달러)를 크게 앞질렀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가동한 구미 A3공장 1라인의 수율안정으로 연말부터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지난 1·4분기 판매 1위에 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블랙패널’ 채용 PDP TV 2종 출시



삼성전자는 블랙패널을 채용해 밝은 곳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재현할 수 있는 ‘파브 데일리이트 플러스’ PDP TV 2종(모델명 SPD-42/50Q7HD)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삼성SDI와 공동 개발한 ‘블랙패널’과 ‘데일리이트 필터’를 적용해 외부의 빛을 최대한 흡수하고 빛의 반사를 막는 한편 내부영상 신호의 투과율은 높임으로써 명실(明室) 명암비를 일반 PDP TV 제품 대비 4배 이상, 기존 데일리이트 제품의 1.8배로 높였다.

HDMI단자를 2개 탑재해 2개의 디지털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전국 주요 매장에 설치된 ‘데일리이트존(Daylight Zone)’을 200여개로 확대하고, 자사 PDP TV의 우수성을 알리는 ‘블랙마케팅’도 전개할 예정이다. 가격은 42인치가 370만원, 50인치가 490만원이다.

죽호학원에 장학금 등 11억 지원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박삼구)은 2일 북구 운암동 죽호학원에서 오남수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안준 죽호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금호는 죽호학원 소속학교 결산·결산가정 급식비 및 학교운영 체납액 지원비 1천840만원과 중앙여고 운동장 공사비 5억2천500만원, 금호고 운동장 공사비 5억5천만원 등 10억 9천340만원을 지원했다.

■3·30부동산 대책 후속입법 마무리

재건축 초과이익 최고 50% 환수

개발이익 1억원이면 1,600만원 부담금 납부해야

“지나친 재산권 침해다”...조항 집단 반발 움직임

3·30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이 우려결 끝에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값 안정대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연내 시행마저 불투명했던 재건축부담금이 당초 예정대로 9월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국가 환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날 중순 공포된 뒤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준공시점과 착수시점(주진위 승인

일)의 집값 차액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당 3천만원 초과 이익에 대해 재건축사업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1억원이면 1천6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2억원이면 6천500만원, 5억원이면 2억1천500만원이 적용된다. 부담금 부과율은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10%씩 누진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 부담금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업이 10년을 넘을 경우 준공시점부터 최장 10년까지만 물면 되도록 내용이

보완됐다. ◇재건축단지 집단반발 움직임=사업 초기의 재건축 단지들은 망연자실한 가운데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아파트 건립 등 규제가 많은데 사업이 한동안 어렵게 됐다”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하다 국민과 조합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단지끼리 연대해 정부 입법 규탄 집회와 소송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서울 시내 60여개 재건축 단지 대표는 2일 오후 강남구민회관에서 ‘서울시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3·30대책을 규탄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 조선소, 세계 1~6위

1분기 수주잔량 54% 차지

한국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 1~6위를 차지하며 독주체제를 이어갔다.

2일 조선·해운시황 전문분석기관인 영국의 클라슨(Clarkson)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각국 조선소 수주잔량은 현대중공업이 1천160만CGT로 2위 대우조선해양(814만CGT)을 346만CGT 차이로 따돌리고 선두를 탈환했다. 삼성중공업은 813만CGT로 지난달에

이어 3위 자리를 지켰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상호중공업이 각각 수주잔량 412만CGT와 325만CGT로 그 뒤를 이었으며 STX조선은 239만CGT로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세계 7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달 세계 7위에 올랐던 한진중공업은 수주잔량이 198만CGT로 일분의 미쓰비시중공업(200만CGT)에 불과 2만CGT 차이로 8위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한국의 7개 업체는 3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수주잔량 1억1천111만CGT 가운데 무려 54%를 차지해

■세계 조선소 순위

조선소명	국적	수주잔량(CGT)
현대중공업	한국	1160만
대우조선해양	한국	814만
삼성중공업	한국	813만
현대미포조선	한국	412만
현대상호중공업	한국	325만
STX조선	한국	239만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200만
한진중공업	한국	198만
대련조선	중국	183만
초네이시엔박	일본	178만

(2006년 3월말 수주잔량기준)

막강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밖에 지난달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중국의 대련조선은 수주잔량 183만CGT로 9위에 랭크됐다.



호텔 체험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이 마련한 호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전문요리사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KT&G 광영균 사장 보너스 ‘두둑’

지난해 경영성과 인정... 주식 6,362주 받아

‘아이간 연합’과 경영권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치른 KT&G 광영균 사장이 작년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두둑한 보너스를 챙겼다.

KT&G는 2일 2005년 상여금으로 광영균 사장에게 6천362주(주당 5만2천원)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현재가격으로 3억3천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29일 과사장이 2004년 상여금으로 3천402주(주당 3만3천250원)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보너스 규모가 3배로 불어난 셈이다.

광 사장은 2004년에는 2001년~2004년 주주총회일까지 임기에 대한 퇴직금으로 1만6천65주(주당 2만6천250주)를 받았다.

이로써 광 사장의 KT&G 보유주식은 3만1천87주로 늘어났고, 이날 거래가인 5만2천200원으로 환산할



경우 평가액은 16억원대로 늘어났다. KT&G는 상임이사와 사외이사의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상여금을 주주총회 보수 한도내에서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이간 연합은 올해 2월 KT&G의 경영참여를 선언하며 주식을 취득했고, 지난 3월17일 자기주 리크텐스타인 스피탈트너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광 사장은 이 과정에서 외국투자자들의 KT&G 호소를 지지하는 해와 IR에 나서는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해 힘썼다.

자산 2조원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7개늘어 1,124개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현재 자산 2조원 이상의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수가 지난달보다 7개 늘어난 1천124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4일 200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된 이후 해당 계열사 11개가 편입되고 4개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별로는 씨제이 계열의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 하이트맥주 계열의 ㈜식수와 퓨리스 및 ㈜퓨리스을료, 효성 계열의 효성윈드파워힐링스(주),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드림투어 등이 회사설립, 자본취득 등을 통해 계열사로 편입됐다.

또 씨제이 계열의 씨제이이치투어와 씨제이모닝텔(주), 태광산업 계열의 ㈜한국에이블티브이수원방송, 현대산업개발 계열의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등은 합병 등의 방식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14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466개로 지난달 14일 지정 당시보다 3개 늘어났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비마트	사무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5	062-650-2205
㈜창일	생산업무, 제품관리 및 영업관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7	062-953-7952
㈜오에이전자	통신장비 설치 및 A/S	초대졸/경력3년	2,000~2,200	05/08	062-971-4800
㈜이비엠시사	교육주임 - 교육기획, 훈련 팀장 및 직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08	062-376-0509
동아프로세스	편집디자인(대리금)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08	062-227-7318
㈜HRN	SK텔레콤114장구 고객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62-529-2671
테마커뮤니케이션(주)	이벤트, 전시, 컨벤션 기획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2-412-6616
㈜웹이즈	물류관리/재고관리/입고관리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0	062-372-3811
㈜인포텍스	웹기획 및 전략기획 전문가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0	062-380-8050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전문금융영업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1	062-654-8101
㈜호원	경영관리(부품원가) 신입 또는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945-8311
도서출판 대동문화	교육담당 학예연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2	062-461-150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